



• Moriama House-Ryue Nishizaw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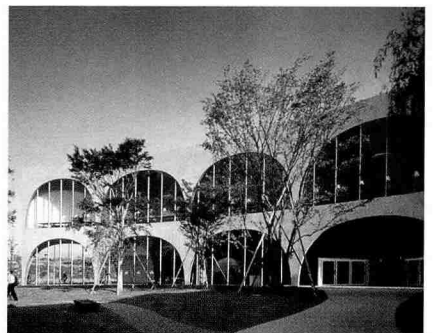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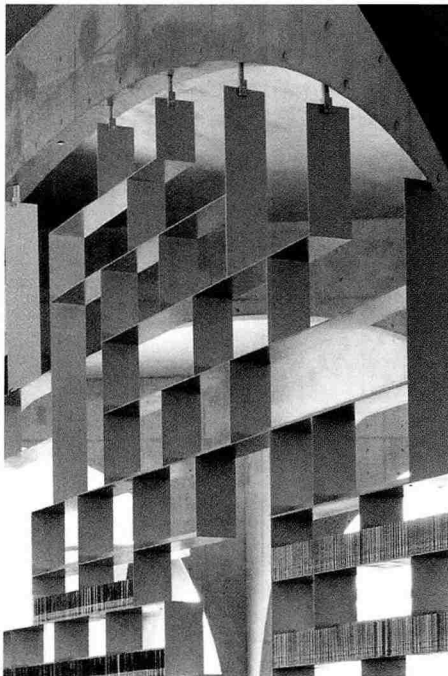
축 운동하는 니시자와의 이 작품도 시간이 지나고 아우라가 곁지면서 대량생산화된 주거 계획에 대한 도전이 주요한 모티브였음을 깨닫게 된다. 니시자와 본인도 더 이상 이 작품에서 형태와 구성을 언급하지 않는다. 유래가 없을 정도로 모리야마 주택은 주거시설의 유니트들을 분산시켜놓고 있다. 이 분리된 블록들은 상호침투하며 연대하며, 외부로 열려있으면서도 정서적으로는 방어적인 공간의 질을 만들어 내고 있다. 현재 주인인 모리야마는 10개의 유니트중에 4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양한 동선과 접근방식으로 개인에 따라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며, 이는 건축사가 이전에 카나자와에서의 작업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지

난 지금 이 주거는 건축사의 의도가 유효했음을 보여주는 이상의 실질적 가치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Tama Art University Library
(도서관/일본 도쿄/건축사: Toyo Ito)

타마 대학의 새로운 입구 근처 부지에 도서관을 의뢰받았을 때, 건축사는 현재 있는 조각 공원 아래에 건물이 숨어있는 것을 떠올렸다고 한다. 콘크리트 매스가 자리를 차

지하며 주변 컨텍스트에 교란을 일으키는 방식이 아니라 부드럽게 조응하는 방식을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상징적인 관문으로서의 건축을 요구한 대학 측의 요구와 학과에 제한되지 않는 폭 넓은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에 따라 이토의 신작은 쉽게 독해 될 수 있는 고전건축의 언어를 동시대의 감성으로 전유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본질에 이르는 최소한만을 남김으로써 미니멀리즘과는 다른 이토의 새로운 접근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 Toyo Ito - Tama library

포이어 카페는 학생과 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접근하다보면 관문을 연상시키는 아치가 곡선의 형태로 반복되어 부드럽게 방문자를 포용하는 파사드와 마주하게 된다. 여기서 평면상으로 곡선을 가진 북쪽 파사드는 실제로도 곡면의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인해 그 곡선의 느낌이 더욱더 강조되어 있다. 간단한 형태 안에서 단순한 원칙하에 콘크리트와 유리는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고전적이면서도 콘크리트의 기술적 진보를 보여주는 얇은 구조재의 노출은 아치를 모티브로 했음에도 가볍고 경쾌하다. 전체적으로 이 건물은 본질에 대한 건축사의 새로운 관심을 드러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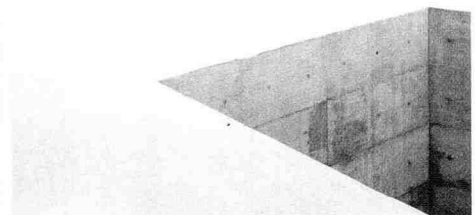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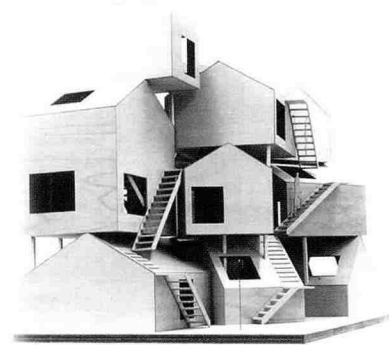
서, '동시대의 규범'을 향한 조용한 열망을 시사하고 있다.

Tateyama house
(주거시설/일본 타테야마/건축사: Sou Fujimoto)

수오 후지모토는 2005년말 Rivew 지가 선정된 Emerging Architecture에 두 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됨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 이듬해에는 홋카이도의 아동 치료시설로 3개의 본상 수상작에 선정되었으며, 의욕적으로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패기만만한 젊은 건축사이다. 그의 건축은 대지와 형태에 대한 섬세한 감각의 솔

직한 표현이 두드러지는데, 좀더 심화된 방식이 타테야마 주택에서 확인된다. 가지를 뺀 듯한 큐브들의 연결은 대지와 경관에 대한 예민한 건축사의 신경망을 느끼게 하며 각 실들은 고유의 경관과 느낌들을 가지고 있다. 주방과 서재, 욕실이 각각의 분기된 가지의 끝에 위치하며, 한판으로 처리된 유리 입면은 시각적 명쾌함을 극한으로 창출하고 있는데, 특히 바다를 보고 있는 응접실과 주방에서의 뷰는 매순간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준다. 프레임 없는 유리벽에 홀로 강조되어 있는 입구 로비측의 도어 프레임은 천장에서 떨어지는 빛과 함께 진입부에 특별한 위상을 부여하고 있으며, 톱라이트에 의한

• Sou Fujimoto - Apartment & Takeyama House



채광방식은 침실부분에서도 반복되어 중심적인 공간을 구분하고 있다. 태평양을 마주 보며 즐길수 있는 욕실은 응접실·주방에서와는 다른 정제된 바다를 실 안으로 끌어들이고, 응접실 바닥은 다다미로 처리되어 일본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섬세함과 대범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신인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차기작을 기대하게 만든다.

21_21 Design Site Museum
(전시시설/일본 미드타운/건축사:
Tadao Ando)

21_21 Design Site는 세명의 유명한 디자이너-이세이 미야케(의상), 타쿠 사토오(그

래픽), 나오토 후카사와(산업디자인)-의 지휘하에 진행되었는데, 대중들에게 디자인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였다. 초기의 계획안보다는 작은 부지에서 진행되었지만 전시 시작 20일 만에 4만명이 방문을 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명망있는 디렉터 이외에도 이 건물을 건축한 디자이너 또한 디렉터에 못지않은 지명도(일반인이 다 아는 건축사가 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타다오 안도이다. 40년이 넘는 기간동안 그에게 있어 좋은 디자인은 대지에 천착하여 그 특성을 공간에 구현하는 것이었다. 그의 언어는 상징적인 것이되었고, 특유의 스타일이 되었으며 대량

복제되었다. 최근 건축을 접하는 이들에게 노출콘크리트는 코르뷔제보다는 안도에 가까운 것이다. 이 건축은 작가가 자신의 스타일의 완결을 느꼈을 때, 스타일과의 거리를 자유롭게 콘트롤 하게되는 그 상태가 타다오 안도에게도 이르렀음을 느끼게 한다. 근작을 통해서 다소 산만한 모색을 하는 것이 아닌가 했던 우려는 집착에서 관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불과했음을 건축사는 작품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글/김훈/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선문대학교 계약직 교원, 부천대학교 출강) ㉡

• Tadao Ando- 21_21 Design Site Museum

